

시민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겸비한 지도자를 기대하며...

박 영 속(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재단 박영숙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민의신문과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사회운동의 리더십이 점차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컨퍼런스가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일에 한국여성재단을 비롯한 여타의 후원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이번 행사가 가능하도록 재정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삼성의 협찬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40년 이상 사회운동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늘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 오히려 현재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사회 민주화를 열망하는 긴박한 역사적 조건하에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논하기 보다는 그 무엇보다 하루 하루 주어진 상황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요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후배들이 그동안의 한국 사회운동의 빛과 그림자를 평가하고 사회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10-20년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를 준비했다는 사실은 제게는 참으로 감회가 새로운 일입니다. 이제 시민사회운동은 그동안의 성과를 폭넓게 재평가하면서 실타래처럼 얽힌 운동의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헤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세월보다는 앞으로 주어질 시대가 더욱 복잡하고 다원화 되고 있으며 운동의 과제 또한 이념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더욱 복잡하고 중층적인 지평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도 구체적인 전망을, 그리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대단히 의미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전국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행사가 참석하신 현장 실무자들과 책임자들에게 일차 도움이 되면서도, 아울러 함께 이 시대에 대한 시민사회적 가치를 짚어준 공동체에 도움이 될 대안이 모색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사회운동은 인권, 평화, 여성, 환경, 복지, 빈곤, 사회개발, 문화, 청소년, 노인, 경제정의, 정치개혁, 장애인, 이주노동자, 자유이주민, 공익기금 등 다양한 시민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볼 수 있는 안목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에 해결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아무쪼록 이번 컨퍼런스가 한 걸음 더 우리 세대 보다는 성숙하고 현명한 사회운동의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는 인큐베이터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